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4)



〈순교자들〉, 김옥순 수녀 작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송] ..... 시편 126(125),1-2 가. 2. 다. 3. 4-5.6  
(◎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 나-3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 루카 9,23-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87]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 봉헌성가: [340] 봉헌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60] 하느님의 어린양
-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때에 <sup>23</sup>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sup>24</sup>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sup>25</sup>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sup>26</sup>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몇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신해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명을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 ✠목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던 성 요한 23세 교황은 ‘나’ 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생각하면 이웃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려면 나를 잊어야 합니다. 또 그는 길을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을 팔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 자신과의 작은 싸움이었기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순교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시대에는 이런 피의 순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순교 정신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순교가 모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 있는 큰 순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나 자신을 죽이는 작은 순교입니다. 성경 한 줄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순교입니다. 내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자 나의 욕구를 죽일 때 그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군 장교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불 먼저 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을 기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없듯 순교 없는 신앙도 없습니다. 아침에 1분 더 일찍 일어나 성경 한 줄이라도 읽는 작은 순교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삼용 요셉 신부)

##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셨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8,35) 성 바오로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영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신앙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시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는 또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순교자들의 승리, 곧 하느님의 사랑의 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오늘날 한국 땅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한국 땅에 닿게 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민족,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처음으로 만난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많이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의 깨달음은 곧 주님과 만남으로 이어져, 첫 세례들과 더불어 충만한 성사 생활과 교회적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선교 활동의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첫 씨앗들이 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요한 17,14 참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박해를 의미했고, 또 나중에는 산속으로 들어가 교우촌을 이루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의해 도전받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 타협하고, 복음의 근원적 요구를 희석시키며, 시대 정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직했던 그 숭고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유산은 선의를 지닌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화해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서로 화합하여 일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인간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8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 강론 중,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 가톨릭출판사)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직했던 그 숭고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SPC 청년 성서모임 2019 가을 학기 그룹원 & 봉사자 모집**  
〔창세기 / 탈출기 / 마르코 / 요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한 4.15

청년성서모임은 성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합니다.

- ♥ 모집 대상 20대 ~ 30대 청년 (로고스, 사파렐, 바오로)
- ♥ 신청방법 온라인: [bit.ly/spcible](http://bit.ly/spcible)  
오프라인: 본당사무실에서 등록
- ♥ 신청마감 2019년 10월 13일 까지
- ♥ 신청문의 대표봉사자 조다은 아네스 703.965.2988

SPC 청년성서모임



**Confirmation Schedule**

SAT 9/28	• <b>Confirmandi Retreat</b> , 2 pm-4 pm, Hasang Building
THU 10/3 & THU 10/10	• <b>Family Interview</b> with Fr. Kang
SAT 10/12	• <b>Confession</b> , 10 am
SAT 10/13	• <b>Rehearsal</b> , 1pm-2pm
WED 10/16	• <b>Confirmation Mass</b> , 7pm

**We're looking for Sunday School Volunteers!**

- **Positions:** Catechists(K-12<sup>th</sup>), Assistant Catechist, Office Assistant
- **Question?** Contact parish office or Sunday school office

**2019-20 SPC PTO Board member (학부모회 임원)**

- President (학부모회 총회장) | 박윤진 레지나
- Vice president, CYO (9-12학년/CYO 부회장) | 김마리아 막달레나
- Vice President, CCD (킨더-8학년/CCD 부회장) | 이해경 켄마
- The Secretary (총무) | 박예인 헬레나
- The treasurer (회계) | 최형숙 세실리아



**SPC CBLM**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2019 Fall Semester Registration**  
(Genesis, Exodus, Mark, John)

- **Who:** Aged 19 to 39 Young Adults (Logos/Raphael/Paul)
- **How:** Online [bit.ly/spcbible](http://bit.ly/spcbible)  
Offline Printed Registration Forms at the SPC Office
- **When:** Register by **October 13, 2019**

Please contact SPC CBLM Lead Volunteer, *Ms. Iris Cho*(Agnes) at (703) 965-2988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September: KOREAN MARTYRS MONTH

MEMORIAL OF  
STs. ANDREW KIM TAE-GON, PAUL CHONG HA-SANG & COMPANIONS

Although few know about these historical events outside Korean Christian circles, Between 8,000 - 10,000 Catholics were martyred during persecutions in Korea in the 19<sup>th</sup> century in the last great period of oppression before the age of Communism and Islamism. St. John Paul II canonized 103 of the martyrs in May 1984.

The first conversions in the traditionally Confucian country began in the late 18<sup>th</sup> century, around the time when the first Christian books written in Chinese were imported in 1777. By the time a Chinese priest arrived at the end of the century; he found about 4,000 Catholics – none of whom had ever seen a priest. The faith had been maintained by aristocratic laymen, the only people who could read at the time, who had sent a delegation on foot 750 miles to Peking asking for a priest. They got two, but they soon returned and it was another 40 years before the arrival of Fr. Mauban, Paul Chong Hasang, Augustine Yu Chin-gil and Charles Cho Shin-chol. Missionaries faced extreme penalties if caught and travelled only at night.

The first Korean priest, Fr. Andrew Kim Taegon, was executed in 1846 aged only 25. Other martyrs included Paul Chong Hasang and his father Augustine, Peter Yu tae-chol, John Baptist Yi and Thomas Son Chason. What especially irked traditional Koreans was that this new faith seemed to undermine class distinctions, encouraging the poor to mingle with their betters. By the time the persecutions had ended in 1866, there were only 20,000 Catholics left in the country, while the vast majority of the martyrs were lay people.



Seventy-nine of the martyrs of 1839 were beatified in 1925, while another 24 were beatified in 1968. St. John Paul II canonized all 103 martyrs in Seoul in 1984.

The Holy Father said that day: “The Korean Church is unique because it was founded entirely by lay people. This fledgling Church, so young, and yet so strong in faith, withstood wave after wave of fierce persecution.”

Even today their undying spirit sustains the Christians in the Church of silence in the north of this tragically divided land. Korea is now thought to have the fourth largest number of saints on earth. In 2004 the Archdiocese of Seoul opened an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for beatification of the Servant of God Paul Yun Ji-Chung and his 123 companions, who in 1791 were tortured and killed in *odium fidei* – in hatred of the faith. (Paul Yun Ji-Chung and 123 companions were declared “Venerable” on 7 February 2014, and on 16 August 2014, they were beatified by Pope Francis during the Asian Youth Day in Gwanghwamun Plaza, Seoul, South Korea.)

Today the sacrifice of the faithful in Korea is marked by the Korean Martyrs Museum-Shrine in Seoul, which contains rooms for liturgical celebration and prayer. It was built in 1967 on the site in the city where many of the Korean martyrs died from 1866 to 1873.

<“Saint of the Week”, <http://www.catholicherald.co.uk>>  
<Wikipedia, ‘Korean Matyrs’>

◀ St. Andrew Kim Taegon, Korea's first priest and martyr. This statue is in the Franciscan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in New York.

본당 교우의 글

아! 천국의 징검다리  
- 님의 손길

- 송금복 켄마 알렌

우연히 성당 부엌에서  
성모회원님을 마주치고  
사랑의 인사를 주고 받다

어느덧 나의 눈가엔  
눈물 방울이 먼저 마음의 인사를  
고우신 님께 드린다  
가뭇에 내리는 빗방울처럼  
가슴은 그렇게 젖어 버렸다

님께서 앓고있는  
투병 때문이 아니다  
그저그냥 목이메어서이다  
보고나니 반가워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님!  
님의 손과 발이  
성모님의 손과 발이 아니신지요?

저의 고운 님의 숨결은  
성모님의 숨결이 아니신지요?

거룩하신 성모님과  
저의 예쁜 님이  
합의되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그 아프신 몸으로  
성당의 부엌봉사 일을  
하실 수 있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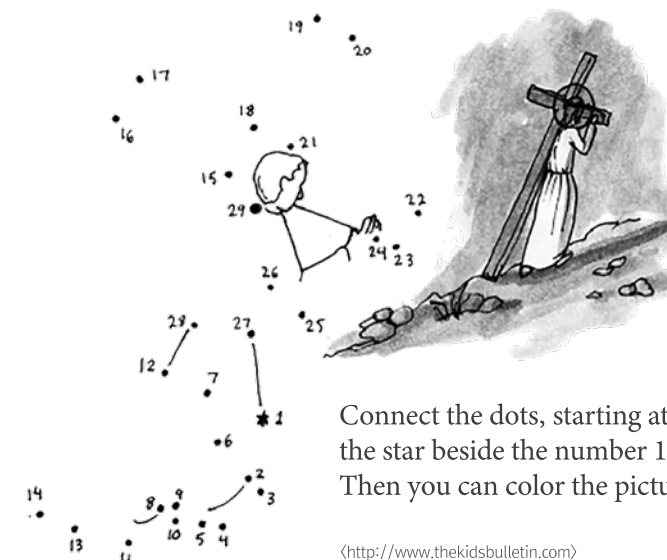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님이시여!  
저의 사랑하는 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힐링을 주시며  
당신의 천국의 징검다리로  
받아주시옵소서!

아! 성모님의 징검다리!  
우리가 건너서 또  
넘어서야 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징검다리!

저의 님은  
우리 성당 성찬식에  
한식구가 되신지 얼마 안되었으나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님께서는  
당신에의 징검다리로  
초대 되셨음을...

(나의 사랑스러운 대녀를 떠올리며)

What do you have to do to be Jesus' disciple?



(<http://www.thekidsbulletin.com>)

## 풍성한 추석 대잔치



하상회와 안나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풍성하고 정겨운 추석을 보냈다. 지난 15일(일) 친교실에서 열린 추석 잔치에서 백인현 주임신부는 “추석은 먼저 하느님과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는 날이며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라며 “오늘 모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1부 순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스 안나 선발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로 발탁된 6명의 후보들 중 박정숙 안젤라 자매가 미세스 안나 진의 영광을 안았다. 점심 식사 후 시작된 2부는 장구 공연과 부채춤, 색소폰 연주, 래플티켓 추첨 그리고 장기자랑 등 흥겨운 무대로 즐거움을 더했다.

김인태 콜롬비아 형제(단체회장)의 재치있는 사회로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푸짐한 추석선물도 받아 더욱 행복한 잔치가 되었다. 원웅식 요셉 하상회장은 “추석잔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각 단체, 봉사자들 그리고 백인현 주임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 2019 야외 울드레야

지난 15일(일) Bull Run Park에서 7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모여 ‘야외 울드레야’ 행사를 가졌다. 각 팀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풍선 나르기, 단체 줄넘기, 빙고, 경보 그리고 방석 뒤집기 등의 게임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백인현 주임 신부님은 꾸르실리스따들을 격려하셨고, 참석한 회원들과 가족들은 어린 시절 운동회를 연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꾸르실로 기사 제공)



**1 전신자 특강**

- 일시 : 9월 26일(목) 오후 8시 - 9:30(성당)
- 강사 : 한기철 실바노 신부(성 바오로 수도회)
- 주제 :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  
(Vinny Flynn 저서를 중심으로)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2 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

-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B-3)

**3 루카회 월례회의(60대 교우)**

-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

**4 복사단 모임**

-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1시(B-1,2)

**5 동중부 꾸르실료 특강 - 향주삼덕**

-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2:30 - 4:30, 친교실
- 민병섭 바오로 신부(성서 신학박사, 전 대전 가톨릭대 총장, 현 리치몬드 성당 주임신부)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6 사도 임원회 및 가족 피크닉**

-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1시(나눔터)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7 빠뜨리치안회 월례모임**

- 일시 : 9월 22일(일) 오후 2시, 친교실(A-1)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304-2129

**8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2019-2020년도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혹은 보좌 신부님께 연락바랍니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9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훈련**

- 일시 : 9월 29일(일) 오전 11:10 - 11:30
- 장소 :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 (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대학 진학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대학 진학에 대한 모든 것”
- 강사 : 대니얼 김(요셉) FCPS 교사/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11 제2회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1시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12 성당 묘지 구입 (20% 할인)**

- 일시 : 10월 5일(토) 오전 11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사무실
- 문의 : 홍이훈 요셉, 연령회 (703)966-8206

**13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 / 7.5K 달리기**

-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7:30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10월 6일(일)까지,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3명) \$30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 소피아 (703)314-0905

**14 SPC 청년 성서모임**

- SPC 청년 성서모임에서 함께 배우고, 느끼고, 나눌 그룹원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
- 성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으신 분, 냉담 중이신 분, 지친 삶에 위로와 따뜻한 나눔이 필요하신 분,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상 : 20대 ~ 30대 청년 (로고스, 라파엘, 바오로)
- 신청방법 : 온라인 - bit.ly/spcible 오프라인 - 본당 사무실에서 등록
- 마감 : 2019년 10월 13일까지
- 문의 : 대표 봉사자 조디은 아녜스 (703-965-2988)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대양의 보호**  
정치인, 과학자, 경제인들이 바다와 대양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The Pope's September Prayer Intentions**

**The Protection of the Oceans**  
That politicians, scientists and economists work together to protect the world's seas and oceans.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5주간 : 잠언 20-25, 갈라 5**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26일(목) 오후 5:00-6:00  
9월 27일(금) 저녁 8:00-9:00  
9월 2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 남매가 같이 걷는 산티아고 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9월 15일(연중 제24주일)

주일헌금	\$7,882.00
교무금	\$4,33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200.00
특별헌금	\$20.00
2차헌금	\$2,878.00
<b>합계</b>	<b>\$17,310.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홍희(발바라), 김민복(아녜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자영(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녜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복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베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야나시), 제임스 리(요한),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22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요한회 모임(오전 11:30, B-3),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루카회(오전 11:30),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바오로회 모임(오후 1시), 사목회 가족 피크닉(오후 1시, 나눔터), KofC 모임(부역 뒤쪽), 꾸르실료 특강(오후 2:30)
23일(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24일(화)	연중 제25주간	평일미사 (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 (하상관)
25일(수)	연중 제25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26일(목)	연중 제25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특강(오후 8시, 성당)
27일(금)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 평일미사(오후 7:30),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28일(토)	연중 제25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M.E. 봉사자 모임
9월 29일(일)	연중 제26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본당 승격 25주년 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오후 1시)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경태 요셉 703-785-4494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703-231-6030 홀케어 703-819-0360 데이케어 703-819-0360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대학 진학 컨설팅</b> 대니얼 김(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62-1371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홀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홀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글로벌 가정의학과</b>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Well Skin Care</b>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테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